

## 불안정 애착과 외도: 관계욕구 충족의 간접효과

박 수 연

고려대학교

박 유 빈

토론토대학교

박 선 응<sup>†</sup>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부부관계에서 성인애착유형이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실제 외도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두 변인 사이에서 관계욕구 충족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성인 기 혼남녀 170명을 대상으로 애착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관계욕구 충족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불안애착이 높은 성인들은 부부관계에서 관계욕구가 충족되는 정도가 낮았고, 이는 높은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회피애착의 경우 회피가 높을수록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은 낮았으나 관계욕구 충족의 간접효과가 정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즉, 관계욕구 충족이 회피 애착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간의 부적 관계에서 억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연구 2에서는 78쌍의 부부가 애착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외도 경험, 그리고 관계욕구 충족 척도에 답변하였다. 연구 결과, 불안애착의 경우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 실제 외도와 관계에서 관계욕구 충족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반면, 회피가 높은 성인들은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은 낮고 실제 외도 경험과는 관련이 없었으나 관계욕구 충족의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종합적으로, 실제 부부들 사이에서 불안애착이 높은 성인은 관계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외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애착이 높은 성인은 전반적으로는 외도를 하지 않으나 관계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외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애착유형, 불안애착, 회피애착, 외도, 관계욕구 충족

<sup>†</sup> 교신저자: 박선응,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최근 부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급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편성된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 부부>에서는 주로 상대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사연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혼율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배우자의 외도는 주요 이혼 원인으로 손꼽힌다(Amato & Previti, 2003). 2017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는 7.1%로, 성격 차이(43.1%)와 경제문제(10.1%) 다음으로 높은 주요 이혼 사유로 나타났다(통계청 보도자료 2017), 미국의 경우 59.6%의 높은 수치로 외도가 이혼의 주된 이유임을 보고했다(Scott et al., 2013).

이에 따라 외도를 유발하는 여러 변인들이 연구되었는데, 그중 개인차 변인으로 주목받은 변인이 성인에착유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교제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결혼생활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Russell et al., 2013), 애착유형과 외도 간에 어떤 기제가 작동하는지 살펴본 연구도 부족하다(Fish, Pavkov, Wetchler, & Bercik,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애착유형과 외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 둘 사이에서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외도의 정의

오래전부터 외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Blow & Harnett, 2005). 일반적으로 성적 외도와 정서적 외도, 그리고 이 두 가지 외도 형태가 결합된 혼합형 외도로 구분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도의 기준이 모호한 이유는 개인마다 어떤 행동들이 성적 외도 및 정서적 외도로 구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Fish et al., 2012; Glass & Wright, 1985; Luo et al., 2010). 한 연구(Guitar et al., 2017)에서는 379명의 남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외도와 정서적 외도를 각각 정의하도록 하였는데, 정서적 외도의 정의가 성적 외도의 정의보다 일관성이 더 부족하게 나타났다. 성적 외도는 다른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이라는 규명 가능한 지점이 있기에 비교적 구분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Selتمان, Garcia, & Tsapelas, 2019; Thompson & O'Sullivan, 2016), Moller와 Vossler(2015)는 성행위 또한 상황과 문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기존 외도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외도를 정의 및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Altgelt 등(2018)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갖는 것을 외도 경험으로 정의하여 외도를 측정하였다. 반면, 일부 연구들(Sevi, Urganci, & Sakman, 2020; Weiser et al., 2018)은 성행위 외에 기존 낭만적 파트너 외에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는 행위 또한 외도 경험으로 정의하여 외도를 측정하였다. Fincham과 Lambert, 그리고 Beach(2010)는 다른 상대와의 실질적인 정서적 및 육체적 교류뿐 아니라 다른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거나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 또한 외도로 간주하여 외도를 측정하였다.

이처럼 외도의 보편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개인마다 외도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외도가 잠재적인 파트너 때문에 기존 낭만적 파트너에 대한 육체적 및 정서적 헌신이라는 약속을 깨는 행위임은 분명하다(Hertlein & Skaggs, 2005). 본 연구에서는 기존 낭만적 파트너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가능성 타진의 측면에서 잠재적 파트너에 대해 보이는 관심(연구 1과 2)과 부적절한 접근 의도 및 행동을 포함하는 실제 외도 경험(연구 2)을 외도의 조작적 정의로 사용하였다.

애착과 낭만적 관계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는 Bowlby(1982)가 고안한 애착 이론을 Hazan과 Shaver(1987)가 성인의 사회관계로 접목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Bowlby(1982)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애착 대상을 찾으려는 동기체계와 행동체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면서, 발달과정에 있어 영유아기에 형성한 애착 대상과의 경험 및 유대관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은 향후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영역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어렸을 때 애착 대상으로부터의 거절과 학대 및 이별로 인한 상실의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발달기에 부정적 정서를 형성하며, 다양한 유형의 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Mikulincer & Shaver, 2003). 이후 Hazan과 Shaver(1987)는 영유아들과 애착 대상 간의 정서적 유대감에서 파생되는 행동 및 동기 체계가 낭만적 관계에 있는 성인들에게도 유사하게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애착의 특성과 같이 성인기에 낭만적 파트너와 애착을 형성한 성인들은 서로가 함께 있을 때 큰 안정감을 느끼지만, 함께 없을 때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Hazan & Shaver, 1987)은 이처럼 성인기에 연인이나 부부 같은 낭만적 파트너를 대상으로 갖는 정서적 유대를 성인애착(adult attachment)이라고 정의했다.

성인애착에 관한 초기 연구는 성인애착을 범주변인으로 측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연속변인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초기 연구자들(Hazan & Shaver, 1987; Bartholomew & Horowitz, 1991)은 성인애착을 유형(type)으로 간주하여 주로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그리고 혼돈형으로 성인애착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성인애착을 범주화했을 때 집단 내 개인차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자들(Brennan, Clark, & Shaver, 1998; Fraley & Waller, 1998)은 성인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두 차

원으로 나누어 성인애착을 연속적인 차원에서 개념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차원모형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각 차원의 높고 낮은 수준을 측정할 수 있어 성인애착의 개인차를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Fraley, Hudson, Hefferson과 Segal(2015)은 차원모형을 사용하여 성인애착을 측정했을 때 범주모형보다 성인애착의 개인차를 더 잘 나타내는 것을 밝혀내어 추후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연속변인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애착에 따른 행동방식의 차이는 주로 낭만적 관계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서 나타난다(Lopez & Brennan, 2000; Wang, 2012).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낭만적 파트너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의 애정을 확인하려 애착 체계의 과잉활성화(hyper-activation)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Mikulincer & Shaver, 2003). 반면, 회피애착이 높은 성인들은 낭만적 파트너와의 상호 친밀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애착 체계를 과소활성화(deactivation)함으로써 상대방을 가까이하지 않는 방어적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Mikulincer & Florian, 1998).

부부와 연인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낭만적 관계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부적응적 대처방식은 다양한 방면에서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Brennan & Shaver, 1995; Hadden, Smith, & Webster, 2014), 본인이나 상대방 어느 한쪽이라도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낭만적 파트너 또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Feeney와 Noller(1992)은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낮은 관계 만족도는 궁극적으로 관계 단절로 이어짐을 확인하기도 했다. 나아가, 불안정 애착은 성적 만족도와도 부적연 관계에 있다. 한 연구(Butzer & Campbell, 2008)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성적 만족도를 보고하였으며,

회피적인 파트너를 가진 사람들 또한 성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불안정 애착과 외도

다수의 선행연구가 불안정한 애착이 외도와 외도 관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llen과 Baucom(200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과 부부, 그리고 결혼 경험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외도와 외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불안애착이 유의하게 외도를 예측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회피애착은 대학생들의 외도만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교제 중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Sakman, Urganci와 Sevi(2021)는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외도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Russell 등(2013)의 연구에서는 파트너가 회피애착이 높은 경우에는 본인의 외도 수준이 낮은 반면, 부부 어느 한 명이라도 불안애착이 높으면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외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혼 및 부부관계, 그리고 교제 중에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Bogaert와 Sadava(2002)의 연구에서는 불안애착만이 성적 외도를 유의하게 예측했다. 나아가, Fish 등(2012)은 과거에 낭만적 관계 경험이 있던 일반인들을 포함하여 부부, 동거, 그리고 교제 중인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불안애착만이 성적외도와 정서적 외도, 그리고 혼합형 외도를 유의하게 예측했다.

반면, 낭만적 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과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Beaulieu-Pelletier 등(2011)의 연구에서는 회피애착만이 성적 외도를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DeWall 등(2011)은 총 7개의 연구를 통해 애착과 외도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교제 중인 대학생들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6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가 교제 중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외도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고, 다른 이성을 만나고자 하는 욕

망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실제 외도 경험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DeWall et al., 2011).

종합하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은 성인일수록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제 외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안애착과 외도 변인 간의 관계가 더 일관적이었다. 이처럼 회피애착이 외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기존 연구들이 표본 수집에 있어 낭만적 관계의 유형(교제 vs. 결혼)을 구분하여 애착과 외도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제 중인 연인들보다 관계에 더 높은 투자와 헌신을 하는 경향이 있다(Miller, 1997; Sprecher, 1988; Stanley & Markman, 1992). 낭만적 관계에서 헌신이 높을수록 외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지하며(Johnson & Rusbult, 1989), 실제로도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낮고 외도를 덜 한다는 점(Le, Korn, Crockett, & Loving, 2010; Miller, 1997; Simpson, Gangestad, & Lerma, 1990)을 미루어 보았을 때,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외도와 교제 중 일어나는 외도는 따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특히 회피애착의 경우에 더 중요할 수 있다.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의지가 낮고 가벼운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Kirkpatrick & Hazan, 1994; Schindler, Fagundes, & Murdock, 2010). 이를 고려해본다면, 회피애착이 높은 성인들은 헌신을 요구하는 결혼을 결정한 이상, 외도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헌신을 깨는 행동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관계의 형태를 구분하여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은 애착과 외도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참가자로 모집하였다.

한편, 해외에서 외도 연구가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 내에서는 외도에 대한 심리학 연구가 드물다(최영아, 박

경, 2015). 잠재적 파트너와 외도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고 외도 의도를 측정 한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이 외도 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현, 허용희, 박선웅, 2017). 신성자(2017)의 연구에서는 혼외 관계와 개방결혼에 대해 관대하고 성역할 고정 관념이 클수록 외도 의도가 높았다. 이처럼 외도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위한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저자들이 이는 한 애착유형을 주된 변인으로 사용한 연구는 없었다.

####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

관계육구는 인간의 여러 기본 심리욕구들 중 하나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을 주고 받고자 하는, 즉 친밀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한다(Ryan & Deci, 2000). Baumeister와 Leary(1995)는 인간은 자연적으로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에서 관계육구 충족을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욕구인 만큼, 관계육구의 충족 여부는 개인의 웰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관계에서 소속감이 높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육체적 및 정신 건강이 높았으며(Reis et al., 2000), 관계육구 미충족은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문제성 도박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s, Li, & Nower, 2021). 또한, Inguglia 등(2015)은 청소년들의 관계육구 미충족과 외현화 행동, 우울증, 그리고 외로움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며, 나이에 상관없이 관계육구 미충족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특히 낭만적 관계의 경우 파트너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Lemieux & Hale, 1999), 낭만적 관계 내에서의 파트너 간 관계육구 충족은 개인의 웰빙뿐 아니라 관계 만족도 등 관계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파트너가 본인의 관계육구를 충족시킨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우울

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했으며(Prager & Buhrmester, 1998), 관계의 질과 관계 헌신, 그리고 관계 만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 & Agnew, 2001; Patrick et al., 2007). 이에 대해 Patrick 등(2007)은 관계육구 충족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적동기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높은 관계의 질로 이어짐을 밝혀내기도 했다. 반대로, 낭만적 관계에서의 관계육구 미충족은 기존 관계를 어그러트리는 큰 위협이 된다. 특히, 관계육구 미충족은 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 연인 및 부부관계에서 관계육구 충족이 낮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실제 외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wandowski & Ackerman, 2006; Michelle, Anthony, & Michael, 2013).

관계육구 충족과 외도 변인들 간의 부적 관계와 더불어, 애착유형에 따라 낭만적 관계에서 파트너와의 심리적 거리를 중요시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Mikulincer & Shaver, 2003)을 고려해 보았을 때, 관계육구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성인들의 외도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특히,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관계육구 충족은 불안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불안형 성인들은 관계에서 파트너와 심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시에 관계에서 본인이 인지하는 친밀도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Chen, 2019; Hadden et al., 2016), 기존 파트너에게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잠재적 파트너를 통해 관계육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불안정 애착과 외도변인간의 메커니즘을 탐색했던 연구들(Allen & Baucom, 2004; DeWall, 2011; Sakman, 2021) 중 Allen과 Baucom(2004)의 연구 결과와 맥을 함께 하는 주장이다. Allen과 Baucom(2004)은 애착유형에 따라 어떤 이유로 외도를 더 많이 했는지 살펴보았는데, 특히 두려움형(fearful), 집착형(preoccupied) 애착으로 분류되는 불안애착이 높은 성인들의 경우, 현재 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즉 친밀감의 부재를 이유로

끝났다. 그러나, Allen과 Baucom(2004)의 연구는 성인애착을 연속변인이 아닌 범주변인으로 측정하여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정도에 따른 외도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볼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부와 연인들 혹은 부부와 이혼한 사람들이 함께 섞인 표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관계육구 충족이 부부생활 중에 일어나는 외도의 메커니즘이라고 해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부생활 중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Allen과 Baucom(2004)의 연구를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애착과 외도간의 관계육구(미)충족이 갖는 간접효과를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각자 관계육구 충족을 통해 외도 변인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변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불안형 성인들이 외도 성향 및 실제 외도 경험이 높았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따라 불안애착은 외도 변인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두 변인 사이에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 회피애착은 외도와의 연관성이 비교적 덜 일관적이기 때문에, 회피애착과 외도 변인과의 연관성은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 연구 1

###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애착과 외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사이에서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의 참가자는 결혼한 성인들이었다. 이들은 애착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관계육구 충족을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2에서는 부부 단위로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참가자들은 애착과 관계육구 충족,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제 외도 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간접효과 모델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델과 같이 두 애착이 한 모델에 들어갔을 경우,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 방법

#### 연구 참가자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 남녀 170명(여성 8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42.51세(표준편차 = 8.78)로 최저 나이는 27세, 최고는 59세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결혼 기간은 13.77년(표준편차 = 9.51)이었고, 89%의 참가자들은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 본 연구는 기 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설문을 모두 마친 참가자들은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현금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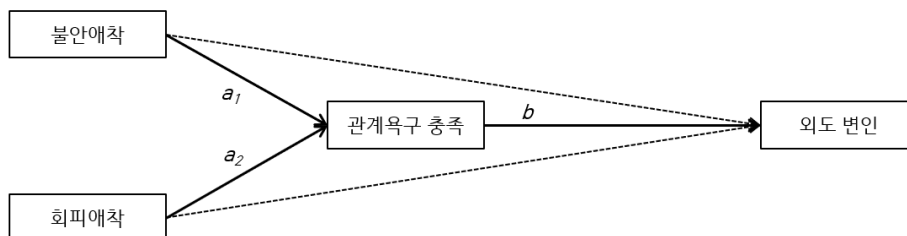


그림 1. 간접효과 모델 (개념도)

측정 도구

**애착유형**

참가자들의 성인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와 Brennan(2000)가 개발하고 김성현(2004)이 번역한 친밀 관계 경험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Revised)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은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개의 문항은 불안애착( $\alpha = .88$ )을 측정하고 18개의 문항은 회피애착( $\alpha = .85$ )을 측정한다. 불안애착을 측정하는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가 있고, 회피애착을 측정하는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가 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낭만적 관계 및 친밀한 관계에서 그들의 전반적인 경험을 잘 묘사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나타내었다.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참가자들이 현재 속해 있는 낭만적 관계 외의 잠재적 파트너에게 보이는 관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iller(1997)의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지표(Attentiveness to Alternatives Index)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alpha = .64$ ).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우자 외에 얼마나 전반적으로 다른 이성에게 끌린적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하는 연구원 두 명이 각자 번역과 역번역하였고, 이후 번역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세 명의 연구원이 문항을 검토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번역본을 만들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다른 이성에게 정신을 뺏긴 적이 있다.”가 있으며, 참가자들은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관계육구 충족**

배우자가 참가자의 관계육구를 얼마나 충족

시켜주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육구 충족 척도(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에서 관계육구 충족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alpha = .84$ ).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척도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영어 척도를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자 두 명이 각각 번역과 역번역을 하고, 다른 연구원 한 명을 포함한 총 세 명의 연구원이 검토 및 수정하여 최종본을 만들었다. 제시된 문항은 “배우자와 있을 때, 나는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배우자와 있을 때, 나는 높은 친밀감을 느낀다.”, “배우자와 있을 때, 나는 종종 우리 관계에서 거리감이 느껴진다.”가 있으며,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나타내었다.

**결 과**

기초 통계 결과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불안애착은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는 정적으로, 관계육구 충족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회피애착의 경우, 관계육구 충족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의 경우, 남성(평균 = 3.71, 표준 편차 = 0.78)이 여성(평균 = 3.32, 표준 편차 = 0.9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독립표본  $t(168) = 3.03, p = .003$ . 다른 주요 변인에서 유의한 성차는 없었다.

애착과 외도 변인 간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

애착 및 통제변인을 예측변인으로, 관계육구 충족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2에 제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2	3	4	5	6	7	평균(표준편차)
1. 불안애착	.23**	.39**	-.33**	-.13	-.01	-.08	3.26 (0.98)
2. 회피애착	-	-.09	-.28**	.08	.05	.06	3.82 (0.71)
3.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	-.34**	-.23**	.11	.03	3.52 (0.86)
4. 관계욕구 충족			-	-.04	-.15*	-.15	4.52 (1.30)
5. 성별(남=1, 여=2)				-	.01	.15	1.49 (0.50)
6. 나이					-	.88**	42.51 (8.78)
7. 결혼 기간(년)						-	13.77 (9.51)

\* $p \leq .05$ . \*\* $p \leq .01$ .

표 2. 관계욕구 충족 및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모형 1: 관계욕구 충족			모형 2: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i>b</i>	<i>SE</i>	<i>t</i>	<i>b</i>	<i>SE</i>	<i>t</i>
불안애착	-0.40	0.10	-4.06**	0.35	0.06	5.61**
회피애착	-0.37	0.14	-2.76**	-0.21	0.09	-2.46**
성별(남=1, 여=2)	-0.12	0.19	-0.60	-0.26	0.12	-2.06*
나이	-0.01	0.02	-0.32	0.02	0.01	1.43
결혼 기간	-0.01	0.02	-0.68	-0.01	0.01	-0.66

\* $p \leq .05$ . \*\* $p \leq .01$ .

시하였다. 먼저, 높은 수준의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은 모두 낮은 수준의 관계욕구 충족과 관련이 있었다(모형 1). 하지만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 것과 달리, 높은 수준의 회피애착은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낮은 관심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2).

다음으로 애착이 관계욕구 충족을 통해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PROCESS(Hayes, 2018; Model 4)을 이용하여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간접효과는 관계욕구 충족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모

형에서 애착변인의 계수 *a*(즉, 표 2 모형 1에서 불안애착 혹은 회피애착의 계수) 그리고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을 준거변인으로, 애착과 관계욕구 충족을 모두 예측변인으로 하는 모형(그림 1)에서 관계욕구 충족 변인의 계수 *b*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즉,  $a \times b$ ). 후자의 모형에서 *b*에 해당하는 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b = -0.20$ ,  $SE = 0.05$ ,  $t = -4.09$ ,  $p < .001$ .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애착 → 관계욕구 충족 →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표 3의 결과는 높은 불안애



표 3. 간접효과 결과 요약

간접효과 (ab)	Estimate	95% CI
불안애착 → 관계육구 충족 →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0.08	[0.031, 0.145]
회피애착 → 관계육구 충족 →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0.07	[0.038, 0.159]

착과 회피애착 모두 낮은 수준의 관계육구 충족을 통해 높은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회피애착의 경우, 직접효과는 부적이지만(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은 낮음),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 관계육구 충족이 억제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아래 논의 부분 참조).

### 논 의

연구 1을 통해 애착과 외도 성향 사이의 관계와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모두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잠재적 파트너에게 끌리거나 관심이 생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과 외도 변인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기존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Allen & Baucom, 2004; Bogaert & Sadava, 2002; Fish et al., 2012; Russell et al., 2013; Sakman et al., 2021). 또한, 불안애착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간의 관계에서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불안이 높은 성인들은 현 부부관계에서 관계육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모두 포함한 모델에서 회피애착은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 부적 관계에 있었다. 즉,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회피애착의 경우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가 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회피애

착과 외도 간의 부적인 직접효과와 반대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처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간접효과 검증에서의 억제효과라고 한다(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간접효과 검증에서의 억제효과 해석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에 따르면(김하형, 김수영, 2020),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회피애착이 직접적으로는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을 낮추는 한편, 부부관계 내에서 관계육구를 충족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간접적으로는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도 한다.

연구 1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불안애착의 경우 기존 연구결과 및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회피애착의 경우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배우자의 애착이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관계육구 충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와 같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는 커플(dyad) 각각의 성격적 특성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에(Kenny, Kashy, & Cook, 2006), 자신의 회피애착보다 상대방의 회피애착이 자신의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관계육구 충족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 이에 연구 2를 진행하였다. 연구 2는 두 가지 면에서 연구 1과 차이가 있다. 첫째, 혼인 관계에 있는 개인이 아니라 부부를 모두 참가자로 모집하였다. 둘째, 외도 변인으로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실제 외도 경험을 포함하였다.

## 연구 2

연구 1에서는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를 개별적으로 모집하여 애착유형과 외도 간의 관계와 그 사이의 관계욕구 충족의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부부 자료는 상호의존적이며 남편과 아내의 데이터는 독립성을 가정할 수 없다는 점(Kenny et al., 2006)에 따라 연구 2에서는 부부를 모두 모집하여 부부를 분석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APIM 모델을 사용하여 본인의 애착유형이 본인의 외도에 미치는 효과(자기 효과, actor effect)와 배우자의 애착유형이 자신의 외도에 미치는 효과(상대방 효과, partner effect)를 살펴보았다.

## 방법

### 연구 참가자 및 절차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78쌍의 부부(총 156명)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서울에 소재한 대학 내 게시판 및 인터넷 카페 게시판, 그리고 인근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모집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아내가 36세(표준편차 = 6.37), 남편이 38세(표준편차 = 6.45)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결혼 기간은 7.24년(표준편차 = 6.64)이었고, 68%의 부부(53쌍)가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 참여 부부가 함께 연구실에 방문하였으며, 독립된 공간에서 각자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전 모든 참가자에게 자신의 응답이 배우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설문을 모두 마친 참가자들은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현금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 보고하는 자료는 부부관계에 대한 대형 연구의 일부로, 이 연구로부터 출

판된 논문이 있기는 하지만(박유빈, 한그림, 정연우, 박선웅, 2018; Park & Park, 2021), 본 논문에서 보고하는 결과는 출판된 적이 없다.

### 측정 도구

#### 애착유형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불안애착  $\alpha = .93$ ; 회피애착  $\alpha = .87$ ).

####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alpha = .70$ ).

#### 관계욕구 충족

연구 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alpha = .88$ ).

#### 외도 경험

참가자들의 실제 외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Drigotas 등(1999)의 외도 척도(Infidelity Scale)를 한국어로 번역 및 일부 각색하여 사용하였다( $\alpha = .80$ ).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배우자 외에 호감을 느꼈던 이성과 얼마나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친밀했는지를 측정한다. 각색한 문항은 6번 문항으로, 6번 문항을 연속변인으로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색하였다(원문항: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호감을 느꼈습니까?; 각색 문항: 두 사람 중 당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꼈습니까?).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연구원 두 명이 각각 번역과 역번역하였고, 그 이후 번역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세 명의 연구원이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번역본을 만들었다. 문항을 측정하기 이전 참가자들이 자신의 주요 파트너 외에 강한 끌림을 느꼈던 상대에 대하여 떠올리도록 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둘 사이에 성행위 등 신체적 접촉 행위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가 있다. 참가자들은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 결 과

### 기초 통계 결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 간 상관관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에서 남편과 아내가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관계육구 충족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t(73) = 2.56, p = .012$ , 다른 변인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 주요 변인에 대한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

남편과 아내의 데이터는 독립성을 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부 데이터는 상호의존적이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다층 모형 분석(multilevel modeling)을 통해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아닌 부부를 분석단위로 사용하는 APIM(Kenny et al., 2006)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APIM은 한 사람(actor)의 예측변인과

상대방(partner)의 예측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자가 그 사람(actor)의 준거변인에 미치는 효과(자기 효과) 및 후자가 동일한 이(actor)의 준거변인에 미치는 효과(상대방 효과)를 동시에 추정한다. 모든 모형에서 성별, 연령, 결혼 기간을 통제하였으며, 분석에는 통계 프로그램 R의 nlme 패키지(Pinheiro, Bates, DebRoy, & Sarkar, & R Core Team, 2014)를 사용하였다.

관계육구 충족,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외도에 대한 애착유형의 자기 효과 및 상대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관계육구 충족을 준거변인으로 한 모형(모형 1)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자기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 혹은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현재 부부관계에서 관계육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을 준거변인으로 한 모형(모형 2)의 경우 회피애착의 자기 효과만이 부적으로 유의했으며, 이는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외도 경험을 준거변인으로

표 4.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아내 평균 (아내 표준편차)
1. 불안애착	(-.05)	.32**	-.37**	-.03	.02	-.14	3.04 (1.20)
2. 회피애착	.30**	(.11)	-.32**	-.18	-.08	.08	3.56 (0.87)
3. 관계육구 충족	-.15	-.19	(.42**)	-.29*	-.25*	-.16	5.19 (1.49)
4.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06	-.22	-.14	(.22)	.54**	.06	3.37 (0.93)
5. 외도 경험	.27*	-.04	-.17	.47**	(-.00)	.05	2.55 (1.45)
6. 결혼 기간(년)	.21	.14	-.19	-.04	.20	-	7.29 (6.70)
남편 평균 (남편 표준편차)	2.81 (0.94)	3.68 (0.80)	5.61 (1.18)	3.57 (0.91)	2.83 (1.30)	7.19 (6.66)	

주. 대각선 위의 숫자는 아내의 변인 간 상관, 대각선 아래의 숫자는 남편의 변인 간 상관이고, 대각선에 놓인 괄호 안의 숫자는 급내상관(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을 나타낸다. 결혼기간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고한 기간이 달라 실제 평균값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 $p \leq .05$ . \*\* $p \leq .01$ .

표 5. 애착, 관계육구 충족,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외도 간의 관계(APIM)

예측변인	모형 1: 관계육구 충족			모형 2: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모형 3: 외도 경험		
	<i>b</i>	<i>SE</i>	<i>t</i>	<i>b</i>	<i>SE</i>	<i>t</i>	<i>b</i>	<i>SE</i>	<i>t</i>
불안애착(A)	-0.22	0.10	-2.27**	0.12	0.08	1.59	0.24	0.11	2.12*
회피애착(A)	-0.28	0.13	-2.19*	-0.23	0.09	-2.48*	-0.23	0.14	-1.61
불안애착(P)	0.03	0.10	0.28	-0.00	0.07	-0.03	0.00	0.11	0.04
회피애착(P)	0.00	0.14	0.02	-0.04	0.10	-0.37	-0.29	0.14	-1.99*
성별	-0.65	0.20	-3.30**	-0.30	0.15	-2.09*	-0.38	0.25	-1.48
나이	-0.05	0.03	-1.57	-0.04	0.02	-1.77	-0.06	0.04	-1.68
결혼 기간	0.02	0.03	0.53	0.04	0.02	1.58	0.08	0.03	2.35*

주. (A) = Actor; (P) = Partner.

(A)는 준거변인을 보고한 사람의 예측변인, (P)는 그 사람의 배우자의 예측변인을 가리키며, (A)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를 자기 효과, (P)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를 상대방 효과로 볼 수 있다.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2로 코딩되었다.

\* $p < .05$ , \*\* $p < .01$ .

로 한 모형(모형 3)에서는 불안애착의 자기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도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회피애착의 상대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 배우자가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자신의 외도 경험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 애착과 외도 변인 간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애착유형이 관계육구 충족을 통해 외도 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애착유형이 외도 관련 변인에 미치는 총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은 아니었으나(표 5, 모형 2와 3), 총효과의 유의성이 간접효과 검증에 있어 필수조건은 아니다(Hayes, 2009; Rucker, Preacher, Tormala, & Petty, 2011). 본 연구에서는 A의 애착유형이 A의 관계육구 충족을 통하여 A의 외도 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총 4개의 간접효과

를 검증하였으며, 각 간접효과( $a_1b_1$ )는  $a_1$ 와  $b_1$ 의 값을 이용해 산출되었다.  $a_1$ 는 관계육구 충족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애착 변인의 계수를 의미하며(즉, 표 5 모형 1에서 불안애착(A), 회피애착(A)의 계수),  $b_1$ 는 외도 관련 변인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관계육구 충족 변인의 계수를 의미한다.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 외도를 준거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b_1$ 는 각각 다음과 같았다:  $b_{\text{잠재적파트너에대한관심}} = -0.20, t = -3.25, p = .002$ ;  $b_{\text{외도경험}} = -0.26, t = -2.79, p = .006$ .

Monte Carlo 신뢰구간 추정법(Preacher & Selig, 2012)을 사용하여 총 네 개의 간접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불안애착이 관계육구 충족을 통해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외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본인의 관계육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느끼며,

표 6. 간접효과 결과 요약

간접효과	estimate	95% CI
불안애착 → 관계육구 충족 →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0.04	[0.004, 0.010]
불안애착 → 관계육구 충족 → 외도 경험	0.06	[0.004, 0.136]
회피애착 → 관계육구 충족 →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0.06	[0.005, 0.125]
회피애착 → 관계육구 충족 → 외도 경험	0.07	[0.004, 0.170]

이러한 불만이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나 외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피애착의 경우,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외도 경험 모두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피애착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간의 부적관계와는 반대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의 경우 연구 1과 동일하게 관계육구 충족이 억제변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논 의

연구 2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애착유형이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 실제 외도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해당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를 살펴 보았다. 본인과 배우자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모두 포함한 APIM 분석 결과, 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낮았으나, 이외는 반대로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회피애착과 잠재적 파트너와의 관심 간의 부적 관계에서 관계육구 충족의 억제효과는 앞선 연구 1과 동일한 결과이다. 외도 경험의 경우, 회피애착의 자기 효과는 부적인 경향성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높은 회피애착이 낮은 관계육구 충족을 통해 높은 외도 경험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형 성인들은 전반적

으로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낮고 외도와는 연관이 없으나, 관계육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외도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외도 경험에서 회피애착의 상대방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ussell 등(2013)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며, 배우자의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자신의 외도 경험이 낮았음을 의미한다.

불안애착은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의 관계에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둘 다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애착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간의 관계에서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외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도 유의했다. 불안애착과 외도와의 정적 관계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Russell 등(201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형 성인들이 현 부부관계에서 본인의 관계육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느껴 잠재적 파트너에게 끌리고 실제 외도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종합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를 대상으로 애착이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실제 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사이에서 관계육구 충족의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결혼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관계욕구 충족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은 부부관계에서 관계욕구가 미충족됨에 따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은 전반적으로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낮았으나, 현 부부관계에서 관계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만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부부가 함께 연구에 참여하여 애착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실제 외도 경험, 그리고 관계욕구 충족 정도를 묻는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 결과,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외도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피애착은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낮고 외도와는 관련이 없었으나, 불안애착과 마찬가지로 관계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 외도 경험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회피애착의 상대방 효과는 실제 외도 경험과 부적으로 유의했는데, 이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회피애착이 자신의 실제 외도 수준을 낮추었다는 의미이다. 불안애착의 상대방 효과는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실제 외도 경험과 연관이 없었다.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는 한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에서 불안애착과 외도 변인간의 정적 상관관계와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로 관계욕구 충족을 재검증하였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Allen & Baucom, 2004)에서는 불안애착 성인의 외도 동기로 친밀감의 부재가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나, 성인애착을 범주변인으로 측정하여 성인애착과 외도변인 간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관계 구분 없이 혼합된 표본(실혼관계, 이혼관계, 교제관계)을 사용하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외도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볼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연속변인으로 측정하고 실혼관계에 있는 참가자들만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불안이 높은 성인들에게는 현 부부관계에서 관계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이 결국 잠재적 파트너를 향한 관심을 높이고 실제 외도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요소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외도연구에서 관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 기존 외도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부부관계와 교제관계가 잘 구분되지 않고 있다(예: Parker & Campbell, 2017; Vossler & Moller, 2020; Sakman, Urganci, & Sevi, 2021). 부부는 연인들보다 관계에 더 헌신하는 경향이 있고(Miller, 1997), 높은 헌신은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실제 외도와 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Le et al., 2010; Simpson et al., 1990) 교제관계 내에서 애착이 외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부관계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결혼한 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불안애착은 외도 변인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회피애착은 부적적인 관계에 있었거나 관련이 없었다. 기존 연구를 관계 유형에 따라 정리해봤을 때, 이런 결과는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교제 경험이 있거나 교제 중인 일반인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Beaulieu-Pelletier et al., 2011; DeWall et al., 2011)에서는 회피애착이 외도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으나, 부부를 대상으로 하거나(Russell et al., 2013) 부부관계를 포함한 연구들(Allen & Baucom, 2004; Bogaert & Sadava, 2002; Fish et al., 2012)에서는 불안애착이 외도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처럼 교제관계와 부부관계에서 성인애착과 외도 변인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외도 연구에서 관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회피애착은 일관적으로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 부적 관계에 있었는데,

이는 교제관계에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회피애착과 외도변인간의 정적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결과를 문화적 차이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동양권에서는 서양권에 비해 회피애착이 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Wang & Mallinckrodt, 2006),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향이 있다(Candel & Turlicu, 2019). 따라서, 낭만적 파트너에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의존하는 것, 즉 낮은 회피애착을 이상적으로 여기지 않는 동양권에서는 높은 회피애착이 낭만적 관계를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부부를 대상으로 한 Russell 등(2013)의 연구에서도 회피애착과 외도 변인 간의 관계가 부적인 경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회피애착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간의 부적 관계는 대안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가능성은, 부부관계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쉽게 충족되어 회피형 성인들이 외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낭만적 관계에서 사람들은 파트너와 가까워지자 하는 욕구 외에도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autonomy need)를 가지고 있으며(Patrick et al., 2007), 회피형 성인들의 경우 주요 외도 동기로 독립성의 부재를 꼽을 만큼 낭만적 관계에서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Allen & Baucom, 2004). 교제관계와 달리 부부관계와 같이 발전된 관계에서는 낭만적 파트너 간의 통제행동이나 질투 등 개인의 독립성 추구에 위협이 될 만한 특성이 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Lantagne & Furman, 2017)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부부관계 내에서는 회피애착이 높은 성인들이 새로운 관계에 주의를 돌릴 만한 동기가 전반적으로 적을 수 있다. 부부관계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독립성 추구를 존중해준다고 느낄 경우 회피형 성인들의 회피적인 경향성이 낮아져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Arriaga,

Kumashiro, Simpson, & Overall, 2018)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추후 지각된 자율성 욕구 충족을 측정하여 부부관계에서 회피애착과 외도변인 간의 부적관계가 지각된 자율성 욕구 충족 정도에 의해 설명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회피애착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간의 직접적인 부적관계와는 별개로, 회피애착이 낮은 관계육구 충족을 통해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및 실제 외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억제효과는 회피애착이 높은 성인들 또한 파트너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은 잠재적 욕구가 있다는 바를 시사하는 최근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기존 연구들(Stanton, Campbell, & Pink, 2017; Debrot et al., 2021)에 따르면, 낭만적 파트너와의 깊은 대화나 애정표현, 그리고 신체적 접촉 등 파트너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행위는 개인의 회피애착 수준과 상관없이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회피애착이 높은 성인들일지라도 부부관계에서는 친밀감의 부재가 외도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회피애착과 달리 불안애착은 관계 유형과 상관없이 비교적 일관적으로 외도와 정적 관계에 있고, 외도 이유 또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불안형 성인들은 실제 외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낮은 관계육구 충족 때문이었다. 이런 결과는 부부관계에 있거나 과거 결혼 경험이 있는 일반 성인들뿐 아니라, 교제 중이거나 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Allen과 Baucom(2004)의 연구에서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이 파트너와의 낮은 친밀도를 외도의 주요 이유로 제시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런 결과는 불안형 성인들에게는 자신이 속한 관계에서 관계육구를

충족하는 것이 외도를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한 가지 논의해 볼 점은 연구 1에서는 유의했던 불안애착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 간의 총효과가 연구 2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는 불안형 성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관계적 양면성(relational ambivalence) 때문일 수 있다. 관계적 양면성이 높은 사람들은 파트너와 친밀하기를 원함과 동시에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데, 이러한 양가적인 감정으로 인해 관계에 대처할 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Mikulincer, Shaver, Bar-On, & Ein-Dor, 2010). 한 연구(Joel, MacDonald, & Shimotomai, 2011)에서는 헌신도 측면에서 불안형 성인들이 경험하는 관계적 양면성의 영향을 밝혀낸 바 있다. 구체적으로, 불안형 성인들이 낮은 관계 만족도로 인해 낮은 헌신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는 불안형 성인들이 높은 의존도로 인해 높은 헌신도로 이어지는 간접효과에 의해 상쇄되었고, 이로 인해 불안애착과 헌신도와의 총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불안형 성인들은 관계육구 미충족으로 인해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낭만적 관계가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가적인 감정으로 인해 불안애착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간의 총 효과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불안애착이 관계육구 충족을 통해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를 어떠한 반대요인이 상쇄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해온 사람들을 참가자로 모집한 것은 본 연구의 또 다른 강점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교제 중인 대학생을 참가자로 모집하거나 과거의 외도 경험에 대해 물어 실제 부부관

계 내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낭만적 관계 유형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듯이, 부부생활 기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단기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특징이 있다(Connolly & Johnson, 1996). 이와 더불어, 파트너 간의 스किन십이나 자기 개방적 대화 등 낭만적 관계에서 자신의 불안정 애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Jakubiak & Feeney, 2016; Stanton et al., 2017), 결혼 기간이 긴 사람들은 이러한 요소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배우자에 대한 불안정 애착 수준은 낮아 외도를 덜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아닌 개인의 일반적인 애착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생활 기간이 다른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에 대한 특정 애착과 외도 변인, 그리고 관계육구 충족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된 한계점은 회피애착과 외도와 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한 회피형 성인들은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낮고 실제 외도 경험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더불어 관계 유형에 따라 회피애착과 외도 변인 간의 관계가 상반된 방향으로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이 점을 고려하여, 부부관계와 교제 관계에서 각각 어떠한 이유로 회피애착과 외도 변인 간의 관계가 부적 혹은 정적으로 나타나는지 메커니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부부가 자발적으로 실험에 동참한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와 함께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파트너 없이 혼자 참여한 사람들보다 관계를 더 긍정적으



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관계 헌신도와 같이 참가자들의 인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변인들은 이러한 긍정적 편향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Barton et al., 2020). 이에 대해 Barton 등(2020)은 미래에도 서로가 함께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험에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관계육구 충족이나 외도 성향 같은 인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서 다소 편향적인 응답이 발생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처럼 부부가 실험에 동참하는 것이 각 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여 어떻게 실험 설계를 할지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혹은, 부부 테이터를 사용하되 부부를 개별적으로 불러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불안애착과 외도 성향 및 실제 외도 경험과의 관계는 부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활용될 여지가 높다. 부부 사이의 외도는 부부와 가족 상담자들에게 다루기 힘든 주제로 여겨진다(윤경자, 2015). 상담자는 부부 중 외도에 가담한 사람의 불안애착 여부와 부부관계에서 관계육구가 만족스럽게 충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부부에게 더욱 실용적인 관계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불안형 성인들에게는 관계육구 충족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교육할 경우, 자신과 배우자의 주요 육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외도가 개인과 부부관계에 가져오는 여러 부정적 상황들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외도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수의 부부가 외도로 인한 이혼을 경험하는데(Scott et al., 2013), 외도의 피해자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겪을 뿐 아니라 낮은 자존감, 우울증, 그리고 높은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한다(Beach, Jouriles, & O'Leary, 1985; Cohen & Finz-Dottan, 2012; Shackelford, 2001). 또한, 부

부는 아이들이 사회 가치를 배우는 근본이 되는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부모의 외도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친다(Negash & Morgan, 2016). 구체적으로, 정서와 인지능력이 발달하는 민감기에 부모의 외도를 겪은 아이들은 정서와 인지능력이 낮았고, 더 나아가 낭만적 관계와 사랑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부정적이었으며, 이는 성장후에 형성하는 낭만적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Negash & Morgan, 2016; Sori, 2007). 뿐만 아니라, 외도는 배우자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도 이어지기도 한다(Brand, Markey, Mils, & Hodges, 2007; Daly & Wilson, 1988). 이처럼, 외도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소공동체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 악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에 따른 외도 동기를 검증함에 따라, 외도의 시발점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 저자 소개

박수연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주요 관심 분야는 낭만적 사랑 관계, 성인애착유형, 정체성 등이다.

박유빈은 토론토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인관계 내 헌신 및 싱글의 웰빙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박선웅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 정체성, 물질주의, 성장동기 등을 주로 연구한다. 저서로는 <정체성의 심리학>이 있다.

### 참고문헌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현, 허용희, 박선웅 (2017). 나르시시즘과 낭만적 관계에서의 외도 의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2), 1-20.  
doi:10.21193/kjspp.2017.31.2.001
- 김하형, 김수영 (2020). 비일관적 매개효과 모형의 해석 방향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1), 91-115. doi:10.22257/kjp.2020.3.39.1.91
- 박유빈, 한그림, 정연우, 박선웅 (2018). 배우자 이상화와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1), 65-81.  
<https://doi.org/10.21193/kjspp.2018.32.1.004>
- 신성자 (2017). 성역할고정관념과 개방결혼에 대한 인식이 성적외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혼외관계 수용성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199-211.  
doi:10.5392/JKCA.2017.17.03.199
- 윤경자 (2015). 외도로 인한 이혼위기의 부부상담: 사례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1), 55-88.  
doi:10.21479/kaft.2015.23.1.55
- 최영아, 박 경 (2015). 외도자의 외도 원인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치료학회지*, 7(1), 69-84.
- 통계청 (2017). 2017년 시도별 이혼사유별 이혼 통계 결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04](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04) 에서 2021. 02. 03 인출.
- Allen, E. S., & Bucom, D. H. (2004). Adult attachment and patterns of extradyadic involvement. *Family Process*, 43(4), 467-488.  
doi:10.1111/j.1545-5300.2004.00035.x
- Amato, P. R., & Previti, D. (2003). People's reasons for divorcing: Gender, social class, the life course, an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4(5), 602-626.  
doi:10.1177/0192513X03254507
- Altgelt, E. E., Reyes, M. A., French, J. E., Meltzer, A. L., & McNulty, J. K. (2018). Who is sexually faithful? Own and partner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infidel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5(4), 600-614.  
doi:10.1177/0265407517743085
- Arriaga, X. B., Kumashiro, M., Simpson, J. A., & Overall, N. C. (2018). Revising working models across time: Relationship situations that enhance attachment secur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2(1), 71-96.  
doi:10.1177/1088868317705257
- Baumeister, R., & Leary, M.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doi:10.1037/0033-2909.117.3.497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doi:10.1037/0022-3514.61.2.226
- Barton, A. W., Lanver, J. A., Stanley, S. M., Johnson, M. D., & Rhodes, G. K. (2020). "Will you complete this survey too?"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 versus dyadic samples in relationship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2(2), 196-203.  
doi:10.1037/fam0000583
- Beach, S. R., Jouriles, E. N., & O'Leary, K. D. (1985). Extramarital sex: Impact on depression and commitment in couples seeking marital therapy.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11(2), 99-108. doi: 10.1080/00926238508406075
- Beaulieu-Pelletier, G., Philippe, L. F., Lecours, S., & Coutre, S. (2011). The role of attachment avoidance in extradyadic sex.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3(3), 293-313.  
doi:10.1080/14616734.2011.562419
- Blow, A. J., & Hartnett, K. (2005). Infidelity in

- committed relationships I: A methodological review.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1(2), 183-216.  
doi:10.1111/j.1752-0606.2005.tb01555.x
- Bogaert, A. F., & Sadava, S. (2002). Adult attachment and sexual behavior. *Personal Relationships*, 9(2), 191-204.  
doi:10.1111/1475-6811.00012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NY: Basic Books.
- Brand, R. J., Markey, C. M., Mills, A., & Hodges, S. D. (2007). Sex differences in self-reported infidelity and its correlates.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57(1-2), 101-109.  
doi:10.1007/s11199-007-9221-5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 46-76).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3), 267-283.  
doi:10.1177/0146167295213008
- Butzer, B., & Campbell, L. (2008). Adult attachment, sexual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 study of married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15(1), 141-154.  
doi:10.1111/j.1475-6811.2007.00189.x
- Candel, O. S., & Turliuc, M. N. (2019). Insecure attachmen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 meta-analysis of actor and partner associ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7, 190-199. doi:10.1016/j.paid.2019.04.037
- Chen, A. (2019). From attachment to addiction: The mediating role of need satisfaction on social networking sit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8, 80-92. doi:10.1016/j.chb.2019.03.034
- Cohen, O., & Finzi-Dottan, R. (2012). Reasons for divorce and mental health following the breakup.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3(8), 581-601. doi:10.1080/10502556.2012.719413
- Connolly, J. A., & Johnson, A. M. (1996). Adolescents' romantic relationships and the structure and quality of their close interpersonal ties. *Personal Relationships*, 3(2), 185-195.  
doi:10.1111/j.1475-6811.1996.tb00111.x
- Daly, M., & Wilson, M. (1988). Evolutionary social psychology and family homicide. *Science*, 242(4878), 519-524.  
doi:10.1126/science.3175672
- Debrot, A., Stellar, J. E., MacDonald, G., Keltner, D., & Impett, E. A. (2021). Is touch in romantic relationships universally beneficial fo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ole of attachment avoid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7(10), 1495-1509.  
doi:10.1177/0146167220977709
- DeWall, C. N., Lambert, N. M., Slotter, E. B., Pond, R. S., Jr., Deckman, T., Finkel, E. J., Luchies, L., & Fincham, F. D. (2011). So far away from one's partner, yet so close to romantic alternatives: Avoidant attachment, interest in alternatives, and infide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6), 1302-1316. doi:10.1037/a0025497
- Drigotas, S.M., Safstrom, C.A., & Gentilia, T. (1999). An Investment Model Prediction of Dating Infide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3), 509-524.  
doi:10.1037/0022-3514.77.3.509
- Feeney, J. A., & Noller, P. (1992). Attachment style and romantic love: Relationship dissolution.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4(2), 69-74.  
doi:10.1080/00049539208260145

- Fincham, F. D., Lambert, N. M., & Beach, S. R. H. (2010). Faith and unfaithfulness: Can praying for your partner reduce infide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4), 649-659. doi:10.1037/a0019628
- Fish, J. N., Pavkov, T. W., Wetchler, J. L., & Bercik, J. (2012).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participate in infidelity: The role of adult attachment and differentiation in extradyadic experienc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0*(3), 214-229. doi:10.1080/01926187.2011.601192
- Fitzpatrick, J., Gareau, A., Lafontaine, M.-F., & Gaudreau, P. (2016). How to use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To estimate different dyadic patterns in MPLUS: A Step-by-Step Tutorial, *The Quantitative Methods for Psychology, 12*(1), 74-86. doi:10.20982/tqmp.12.1.p074
- Fraley, R. C., Hudson, W. N., Heffernan, E. M., & Segal, N. (2015). Are adult attachment styles categorical or dimensional? A taxometric analysis of general and relationship-specific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2), 354-368. doi:10.1037/pspp0000027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doi:10.1037/0022-3514.78.2.350
- Fraley, R. C., & Waller, N. 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 77-114). New York: Guilford Press.
- Glass, S., & Wright, T. (1985). Sex differences in type of extramarital involvement and marital dissatisfaction. *Sex Roles, 12*(9-10), 1101-1120. doi:10.1007/BF00288108
- Guitar, A., Geher, G., Kruger, D., Garcia, J., Fisher, M., & Fitzgerald, C. (2017). Defining and distinguishing sexual and emotional infidelity. *Current Psychology, 36*(3), 434-446. doi:10.1007/s12144-016-9432-4
- Hadden, B. W., Smith, C. V., & Webster, G. D. (2014). Relationship duration moderates associations between attachment and relationship quality: Meta-analytic support for the temporal adult romantic attachment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8*(1), 42-58. doi:10.1177/1088868313501885
- Hadden, B. W., Rodriguez, L. M., Knee, C. R., DiBello, A. M., & Baker, Z. G. (2016).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of attachment and need fulfillment in romantic dyad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4), 349-357. doi:10.1177/1948550615623844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doi:10.1080/03637750903310360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doi:10.1037/0022-3514.52.3.511
- Hertlein, K. M., & Skaggs, G. (2005).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and infidelit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Couple & Relationship Therapy, 4*(2/3), 195-213. doi:10.1300/J398v04n02\_16
- Inguglia, C., Inguglia, S., Liga, F., Lo, C. A., & Lo, C. M. (2015). Autonomy and Relatedness in

-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relationships with parent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2(1), 1-13.  
doi:10.1007/s10804-014-9196-8
- Jakubiak, B. K., & Feeney, B. C. (2016). A sense of security: Touch promotes state attachment security.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7(7), 745-753. doi:10.1177/19485506166646427
- Joel, S., Macdonald, G., & Shimotomai, A. (2011). Conflicting pressures on romantic relationship commitment for anxiously attached individuals. *Journal of Personality*, 79(1), 51-73.  
doi:10.1111/j.1467-6494.2010.00680.x
- Johnson, D. J., & Rusbult, C. E. (1989). Resisting temptation: Devaluation of alternative partners as a means of maintaining commitmen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967-980.  
doi:10.1037/0022-3514.57.6.967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Guilford Press.
- Kirkpatrick, L. A., & Hazan, C. (1994). Attachment styles and close relationships: A four-year prospective study. *Personal Relationships*, 1(2), 123-142.  
doi:10.1111/j.1475-6811.1994.tb00058.x
- Lantagne, A., & Furman, W. (2017). Romantic relationship development: The interplay between age and relationship length. *Developmental Psychology*, 53(9), 1738-1749.  
doi:10.1037/dev0000363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doi:10.1037//0022-3514.79.3.367
- Lemieux, R., & Hale, J. L. (1999).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in young romantic relationships: Successfully measuring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ports*, 85(2), 497-503. doi:10.2466/PRO.85.6.497-503
- Le, B., & Agnew, C. R. (2001). Need fulfillment and emotional experience in interdepend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3), 423-440.  
doi:10.1177/0265407501183007
- Le, B., Korn, S. M., Crockett, E. E., & Loving, J. T. (2010). Missing you maintains us: Missing a romantic partner, commitment, relationship maintenance, and physical infidel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8(5), 653-667.  
doi:10.1177/0265407510384898
- Lewandowski Jr., G. W., & Ackerman, R. A. (2006). Something's missing: Need fulfillment and self-expansion as predictors of susceptibility to infidelit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6(4), 389-403. doi:10.3200/SOCP.146.4.389-403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283-300.  
doi:10.1037/0022-0167.47.3.283
- Luo, S., Cartun, M. A., & Snider, A. G. (2010). Assessing extradyadic behavior: A review, a new measure, and two new mode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3), 155-163.  
doi:10.1016/j.paid.2010.03.033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doi:10.1023/A:1026595011371
- Michelle, J., Anthony, J., & Michael, Mong. (2013). An examination of potential attractions of

- women's marital infidelit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2, 14-28.  
doi:10.1080/01926187.2012.737283
- Mikulincer, M., & Florian, V.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emotional and cognitive reactions to stressful events.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 143-165).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3). The attachment behavioral system in adulthood: Activation, psychodynamic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5, pp. 53-15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Mikulincer, M., Shaver, P. R., Bar-On, N., & Ein-Dor, T. (2010). The pushes and pulls of close relationships: Attachment insecurities and relational ambiva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3), 450-468.  
doi:10.1037/a0017366
- Miller, R. S. (1997). Inattentive and contented: Relationship commitment and attention to alterna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58-766.  
doi:10.1037/0022-3514.73.4.758
- Mills, D. J., Li, A. W., & Nower, L. (2021). General motivation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roblem gambling: applying the framework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ddiction Research & Theory*, 29(2), 175-182.  
doi:10.1080/16066359.2020.1787389
- Moller, N. P., & Vossler, A. (2015). Defining infidelity in research and couple counseling: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41(5), 487-497.  
doi:10.1080/0092623X.2014.931314
- Negash, S., & Morgan, M. L. (2016). A family affair: Examining the impact of parental infidelity on children using a structural family therapy framework. *Contemporary Family 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38(2), 198-209.  
doi:10.1007/s10591-015-9364-4
- Park, Y., & Park, S. W. (2021). Partner commitment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commitment and interest in romantic alternatives. *Current Psychology*, 40, 1439-1447.  
https://doi.org/10.1007/s12144-018-0079-1
- Parker, L. M., & Campbell, K. (2017). Infidelity and attachment: The moderating role of race/ethnicity.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9(3), 172-183. doi:10.1007/s10591-017-9415-0
- Patrick, H., Knee, C. R., Canevello, A., & Lonsbary, C. (2007). The role of need fulfillment in relationship functioning and well-be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434-457.  
doi:10.1037/0022-3514.92.3.434
- Pinheiro, J., Bates, D., DebRoy, S., Sarkar, D. & R Core Team. (2014). *Nlme: Linear and Nonlinear Mixed Effects Models*. R Package Version 3, 1-117.
- Prager, K. J., & Buhrmester, D. (1998). Intimacy and need fulfillment in coupl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4), 435-469. doi:10.1177/0265407598154001
- Preacher, K. J., & Selig, J. P. (2012). Advantages of Monte Carlo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6(2), 77-98. doi:10.1080/19312458.2012.679848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 Ryan, R. M. (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4), 419-435.  
doi:10.1177/0146167200266002
- Rucker, D. D., Preacher, K. J., Tormala, Z. L., & Petty, R. E. (2011). Mediation analysis in social

- psychology: Current practices and new recommendation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6), 359-371.  
doi:10.1111/j.1751-9004.2011.00355.x
- Russell, V. M., Baker, L. R., & McNulty, J. K. (2013). Attachment insecurity and infidelity in marriage: Do studies of dating relationships really inform us about marria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2), 242-251.  
doi:10.1037/a0032118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doi:10.1037/0003-066X.55.1.68
- Sakman, E., Urganci, B., & Sevi, B. (2021). Your cheating heart is just afraid of ending up alone: Fear of being singl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infide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8, 110366. doi:10.1016/j.paid.2020.110366
- Schindler, I., Fagundes, C. P., & Murdock, K. W. (2010). Predictors of romantic relationship formation: Attachment style, prior relationships, and dating goals. *Personal Relationships*, 17(1), 97-105. doi:10.1111/j.1475-6811.2010.01255.x
- Scott, S. B., Rhoades, G. K., Stanley, S. M., Allen, E. S., & Markman, H. J. (2013). Reasons for divorce and recollections of premarital intervention: Implications for improving relationship education. *Couple & family psychology*, 2(2), 131-145. doi:10.1037/a0032025
- Seltermann, D., Garcia, J. R., & Tsapelas, I. (2019). Motivations for extradyadic infidelity revisited. *Journal of Sex Research*, 56(3), 273-286.  
doi:10.1080/00224499.2017.1393494
- Sevi, B., Urganci, B., & Sakman, E. (2020). Who cheats? An examination of light and dark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infide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4, 110126. doi:10.1016/j.paid.2020.110126
- Shackelford, T. K. (2001). Self-esteem in marria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3), 371-390. doi:10.1016/S0191-8869(00)00023-4
- Simpson, J. A., Gangestad, S. W., & Lerma, M. (1990). Perception of physical attractiveness: Mechanisms involved in the maintenance of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192-1201.  
doi:10.1037/0022-3514.59.6.1192
- Sori, C. F. (2007). "An affair to remember": Infidelity and its impact on children. In P. R. Peluso (Ed.), *Infidelity: A practitioner's guide to working with couples in crisis* (pp. 247-276). New York, NY: Routledge.
- Sprecher, S. (1988). Investment model, equity, and social support determinants of relationship commit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1(4), 318-328. doi:10.2307/2786759
- Stanley, S., & Markman, H. (1992). Assessing commitment in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3), 595-608.  
doi:10.2307/353245
- Stanton, S. C. E., Campbell, L., & Pink, J. C. (2017). Benefits of positive relationship experiences for avoidantly attached individ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4), 568-588. doi:10.1037/pspi0000098
- Thompson, A. E., & O'Sullivan, L. F. (2016). I can but you can't: Inconsistencies in judgments of and experiences with infidelity. *Journal of Relationships Research*, 7, Article E3.  
doi:10.1017/jrr.2016.1
- Vossler, A., & Moller, P. N. (2020). Internet affairs: Partne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internet infidelity.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46(1), 67-77.  
doi:10.1080/0092623X.2019.1654577

- Wang, C.D., King, M., & Debernardi, N.R. (2012). Adult attachment, cognitive appraisal, and university students' reactions to romantic infidelity.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5*(2), 101-116. doi:10.1002/j.2161-1882.2012.00009.x
- Wang, C. C. D., & Mallinckrodt, B. S. (2006). Differences between Taiwanese and U.S. cultural beliefs about ideal adult attach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2), 192-204. doi:10.37/0022-0167.53.2.192
- Weiser, A. D., Niehuis, S., Flora, J., Punyanut-Carter, M. N., Arias, S. V., & Baird, H. R. (2018). Swiping right: Sociosexuality, intentions to engage in infidelity, and infidelity experiences on Tin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3*, 29-33. doi:10.1016/j.paid.2017.10.025
- 1 차원고접수 : 2021. 08. 18.  
수정원고접수 : 2021. 11. 11.  
최종게재결정 : 2021. 11. 19.



## **Insecure Attachment and Infidelity: The Indirect Effect of Relatedness Need Fulfillment**

**Soo Yeon Park**

Korea University

**Yoobin Park**

University of Toronto

**Sun W. Park**

Korea University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marital infidelity and to test the indirect effect of relatedness need fulfillment between the two. In Study 1, 170 married men and women responded to measures of attachment, attentiveness to alternatives, and relatedness need fulfillment. The results showed that attachment anxiety was positively related to attentiveness to alternatives via low relatedness need fulfillment. On the other hand, attachment avoidance was negatively related to attentiveness to alternatives but the indirect effect appeared in an opposite direction. That is, the suppression effect of relatedness need fulfillment was present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attentiveness to alternatives. In Study 2, 78 married couples completed measures of attachment, attentiveness to alternatives, infidelity, and relatedness need fulfillment. Results indicated that attachment anxiety was positively related to both attentiveness to alternatives and actual engagement in infidelity due to low relatedness need fulfillment. Meanwhile, attachment avoidance was negatively related to attentiveness to alternatives, but unrelated to infidelity. However, indirect effect of relatedness need fulfillment appeared to be significant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attentiveness to alternatives and infidelity. Taken together, married individuals with high attachment anxiety were less fulfilled with their relatedness need, which in turn promoted more attention to alternatives and actual engagement in infidelity. On the other hand, avoidant individuals were less likely to pay attention to alternatives and engage in infidelity in general, but when their relatedness need was unfulfilled, they tended to engage more in infidelity.

*Key words* : attachment style,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marital infidelity, relatedness need fulfillment